KBO리그 FA 상한제 전면 추진 | '4년 총액 80억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80억 기준 근거도, 이면계약 대책도 없다

역대 FA계약 중 80억 이상은 16건뿐
보상선수 규정 놔두고 단일계약 제재
실효성 의문…선수들도 부정적 시각
몸값 100억 초과 예상 양의지 직격탄

KBO 정운찬 총재는 지난 12일 "시급한 과제인 프리에이전트(FA) 제도 개혁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논의하겠다. 개인적으로 FA 액수가 너무 높아 구단과 프로야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0개 구단 대표이사가 참가한 KBO 이사회는 FA제도 개선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

보상선수와 보상금액, 취득기간을 세분화환 등급제 도입으로 FA 공급 확대를 선택할 것 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KBO 이사회와 정 총장은 매우 급진적인 선택을 했다.

KBO는 이사회 종료 후 선수협회에 'FA계약 총액을 8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취득기간 단축', '등급제 시행'을 제안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80억원 이하로 설정된 상한제다.

FA 몸값 80억 이상 선수 16명 (발표액 기준)

	연도	구단	금액(원)
이대호	2017년	시애틀→롯데	150억
김현수	2018년	필라델피아→LG	115억
최형우	2017년	삼성→KIA	100억
손아섭	2018년	롯데 잔류	98억
박석민	2016년	삼성→NC	96억
차우찬	2017년	삼성→LG	95억
윤석민	2015년	볼티모어→KIA	90억
황재균	2018년	샌프란시스코→KT	88억
최정	2015년	SK 잔류	86억
김광현	2017년	SK 잔류	85억
김태균	2016년	한화 잔류	84억
정우람	2016년	SK→한화	84억
장원준	2015년	롯데→두산	84억
윤성환	2015년	삼성 잔류	80억
강민호	2018년	롯데→삼성	80억
민병헌	2018년	두산→롯데	80억

선수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는 26일 "프로야구 선수들 모두 구단과 리그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여러 제도의 변화, 규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KBO의 제안은 너무나 급진적이면서 강경하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자고 한다"며 난색을 표한 뒤 "정책적으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내려간다. 등급제 도입과 FA 취득기간 단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등급제는 현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KBO는 선수협회에 10개 구단과 함께 협의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10월 중순까지 FA와 관련해 새 규약을 확정, 올해 곧바로 시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는 양의지(두산 베어스)는 몸값이 100억원을 훌쩍 넘어갈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당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선수협회는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KBO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수들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룬다. 김 사무총장은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팬, KBO, 구단, 선수, 미디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총액 80억원 이하 상한제는 액수 설정과 실효성에도 논란이 따른다. 역대 FA계약 중 4년 총액 80억 원 이상 계약은 총 16건이었다. 구단의 연봉 총액을 규제하는 셀러리 캡도 아닌 단일 계약의 상한제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8~2009년 시행했지만 대부분 구단이 위반했던 다년계약·계약금 금지 규정처럼 음성적인 이면계약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도 많다.

KBO가 선수협회에 전달한 등급제는 B등급에도 보상선수 규정이 포함됐다. A등급은 현재처럼 보호선수 20명, B등급은 보호선수 25명 외 1명을 보상선수로 내줘야 한다. 그러나 보상선수가 특급 FA의 몸값만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공급은 늘리지 못하고 규제만 가하는 모양세가 될 수 있다. 특히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최근 3시즌 평균연봉 팀 내 순위로 제안됐는데 이 역시 구단이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내가 왜 떴게?

떡잎이 파릇파릇하네

●YG, 위너 김진우 생축 :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다. 위너 김진우가 생일을 맞았다. YG엔터테인먼트가 김진우를 위해 깜찍한 선물을 준비했다. 공식 블로그에 특별히 제작한 포스터(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요게 대박이다. 유치원 졸업사진일까. 학사모를 쓴 깜찍한 김진우 어린이의 사진을 'HAPPY BIRTHDAY' 문구와 함께 게재했다. 동그랗고 똘망똘망한 눈과 오뚝한 코,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 하는 듯한 입매가 지금의 김진우와 똑 닮았다.

내 컵, 누가 가져갔니

●김혜수, No 플라스틱 챌린지 : "1회용 컵을 쓸 땐 제 이름을 써놓고 최소 하루에 한 개만 쓰려고 노력해요". 역시 김혜수다. 김혜수가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SBS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의 'No 플라스틱 챌린지'에 출연해 평소 실천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노하우를 공개했다. 우연히 촬영장 쓰레기통 속에 가득 쌓인 생수병, 1회용 커피용기 등을 본 이후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다음 주자로는 배우 정우성과 한지민을 지목했다. 멋져요, 김혜수씨. 그런데 '김혜수' 이름 쓰인 1회용 컵 훔쳐가는 인간 꼭 있을 듯.

방탄소년단이 25일(한국시간)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서 세계 정상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미국) | AP ·뉴시스

세계를 울린 방탄의 '유엔 연설'…헉, 누가 썼다고?

리더 RM, 유창한 영어로 7분간 스피치
열 살 때 경험 녹여 직접 연설문 작성
'자신을 사랑하라' 메시지 전세계 전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세계적인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전한 '작은 울림'이 계속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추석 연휴인 25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UNICEF)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 참석해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이 화제가 된 것은 한국 가수 최초로 유엔총회 행사에 참석했고,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인 장소에서 7분간 유창한 영어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유엔총회에 초청된 과정과 세계를 사로잡은 연설문은 누가 작성했는지 등 뒷이야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유엔총회 참석을 주선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측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유스(Youth) 2030' 프로그램 중 교육부문 파트너십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탄소년단을 섭외했다.

기성세대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권한을 확대하자는 취지와 방탄소년단의 시리즈인 '러브 유어셀프'와도 잘 맞아떨어졌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니세프와 손잡고 세계·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측은 27일 "'모든 가능성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한다'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과 청년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자는 유니세프의 새로운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는 지향하는 가치가 같다"며 초청 이유를 밝혔다.

리더 RM은 글로벌 청년대표 자격으로 초청받은 방탄소년단을 대표해 "10살 때쯤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염려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더라"며 "그 시절 나의 안식처였던 음악은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며 나를 일깨웠다"고 자신의 경험을 공개했다. 이어 "가슴을 뛰게 하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메시지를 전해 깊은 공감을 얻었다.

RM의 경험담과 진솔한 이야기가 녹아든 연설문은 RM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 RM이 초안을 작성해 소속사 측에 전달한 후 어휘나 문법 등만 수정해 연설문을 완성했다.

멤버 가운데 RM이 대표로 연설대에 오른 것은 유창한 영어실력 때문이다. 그는 어린 시절 평소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와 해외 가수들의 음악을 들으며 실력을 키워왔다.

RM은 유엔총회 연설 후 26일 방송한 NBC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해 "연설하면서 손이 떨리고 정말 긴장했다"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27일 미국 ABC 간판 아침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한다. 10월6일에는 뉴욕 시티필드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